

장진기 / 김은경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소식

P.O.Box 0332, Kampong Cham, Cambodia
E-mail: changjinkee@gmail.com / keksk21@gmail.com

Tel: 855-97-807-1720(장진기) / 855-31-925-3070(김은경)
070-7569-9088(인터넷전화)

2015년 11월 2일
18번째 선교편지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가정과 사역 위해 늘 힘써주시는 모든 선교동역자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민이의 2차 심장수술이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8시간 반이던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민이는 주님의 은혜로 지난 1차 수술 때보다 회복속도가 빨라 금일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완치되지 않은 폐의 회복과 재활치료(다리)를 위해 동원치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동시에 지민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신 동역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소식들을 몇 자의 글과 사진들로 담아 전합니다.



☞ 교회사역

[교회처소 이전준비]

성도의 마음에서 가장 가깝게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교회처소를 옮기려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마음에 드는 장소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지역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반판이 될 수 있는 장소가 허락되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직접 예배당을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리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잦은 왕래와 교제를 통해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실 처소를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주야 2부모임 -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3개월 과정의 1차 수학교실이 9월말로 종료되었습니다. 종료와 함께 책거리 시간을 갖고 서로의 수고를 독려하는 시간이 가졌는데, 다들 처음 접하는 만들기 시간이 재미있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여서 좀처럼 쉽게 따라 하지는 못 하지만, 색종이가 한 장에 웃고 우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만들기 시간 후, 간단하게 배를 채워봅니다.

사실 이 시간이 학교수업의 연장처럼 진행되다 보니 교회가 진정 채워야 할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계속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까프다 전도사와 협의하여 10월부터 시작되는 3개월 코스는 성경공부(말씀암송, 주기도본, 사도신경)와 찬양 & 율동을 배우기로 하여 시작하였는데, 듣고 따라 하기는 쉽지만, 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의 언어의 한계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나오던 아이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모습이 보여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다시금 학교교육을 시작한다면, 그 또한 말씀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도전해보려 합니다.

아이들 마음의 중심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합수련회 / 종교부 모임참석]

같은 껌뽕뽕 주 내에 30여분 떨어진 지역에서 사역중인 이종용 선교사님의 센터에서 연합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역자에게는 말씀사역훈련을, 학생에게는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한 이번 수련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쉬운 점은 참석했던 세 명의 학생이 4박 5일의 일정은 소화하기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많이 부담되었나 봅니다. 처음과는 달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결국 까프다 전도사와 저만 수련회를 참석하며 시간은 보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는 다 함께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깜빡깜 주지사 주최 종교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의 주된 내용은 현지에서 사역중인 목회자 & 선교사들의 교제와 협력으로 예배와 정부(종교부)지침 전달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주지사의 환영사에서 깜빡깜 주의 기독교 현황(역사 및 분포)을 듣게 되었는데 깜빡깜 주의 기독교 역사를 접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 내용들을 전부 이해하기에는 이들의 언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듣는 귀의 부족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서 다시금 언어의 한계를 통감하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지학교 후원협력사역

[현지학교 지원(병스나이 혼령초등학교) / 언어학교 개선]

지난 학교지원사역 중, 방학이정과 겹치면서 새학기조 미준 교복후원과 후원단체를 통해 전달받은 책걸상 지원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후원사역이 계획된 이정 가운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또한, 학교와 연계하여 언어학교를 준비(개강일: 11월 둘째주)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이과가 끝난 후, 시작되는 언어학교(한국어, 영어)는 참여 인원수에 따라 반 편성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언어학교가 보다 더 좋은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동시에 선교의 또 다른 접촉 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요, 언어공부의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한국장애인협회 - 후원문품 전달]

한국장애인협회에서 현지학교 지원과 향후 학교사역을 위한 후원문품으로 국내 초등학교에서 사용중인 책걸상 기증받았습니다.

지난 컨테이너 선적과 전달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지학교장의 도움을 받아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자 준비해 보았지만, 현지의 부패한 행정관행이 이를 어렵게만 합니다.



협회의 협의를 통해 세금감면은 포기하고 이반통관 등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사역의 도움을 주고자 수고하는 협회와 책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의하기는 향후 문품전달의 수월함을 위해 현지에서 NGO단체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동시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소식

[지민이 소식]

소식의 서두에서 전한 바와 같이 지민이는 금일 퇴원하여 수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통원치료와 재활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심장수술(10월 1일) 후, 정확히 33일만에 퇴원한 지민이는 1차 수술 때보다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간도 전보다 1주 이상을 단축하였고, 호흡기 제거도 수월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동시에 지민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동역자님의 사랑의 힘이라 믿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향후 진행될 치료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는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아직은 완전치 않은 폐의 회복을 위한 치료이며, 다른 하나는 재활치료로 10도 정도 굽은 지민이의 다리(김영경 선교사의 생각)가 완전히 펴지기 위한 재활치료인데, 꾸준한 재활을 통해 속히 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민이를 위한 기도제목 중, 11월 4일 지민이의 첫 돌 이전에 퇴원하여 가족이 함께 첫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었는데, 기도의 응답이가요? 돌 전에 퇴원하여 함께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가정의 소식]

지아와 지훈이는 지민이의 회복이 곧 자신들이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늘 지민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시에 얼마남지 않은 고국에서의 생활을 보내며, 각자 학교와 어린이 집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익숙해질 법한 1년여의 삶 속에서도 캄보디아를 그리워하며 속히 돌아가길 소원하는 지아와 지훈이의 모습에서 가정에 주신 캄보디아를 향한 마음이 자녀인 지아와 지훈이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지민이의 수술로 임시 귀국길에 올랐던 2주간의 일정 속에서 헤어지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아빠를 보내기 싫은 지아의 눈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녀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히 가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교회사역:

[교회장소 이전] 마을 근처로 교회회소를 옮겨 성도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자발적 교인으로서의 훈련과 동시에 지역교회로서의 분명한 자리를 잡기 소원합니다.

마을을 오가며, 지리적으로 적당한 곳을 보고는 있지만,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장소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찾은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분명 예비하신 좋은 장소와 공간이 있을 줄 압니다.

허락을 구하고 찾게 될 교회의 처소를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사역자를 위해] 함께 할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준비중인 까프다 전도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실 새 사역자와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중인 까프다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통해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소원합니다. 나의 때를 구하기보다 주님의 때를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2. 학교지원사역 및 개척선집사역:

[학교지원사역] 주님 뜻에 합당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학교장과의 관계가 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학교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현지인들과의 교제가 형성되는 언어학교 개강을 위해 준비중인데,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뜻하신 바,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어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선집사역] 선집할 학교의 교육방식을 놓고 기도 중입니다. 무엇이 현지에 가장 적합한 교육방식인가를 찾기 위해 현지학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선집한 학교(국제학교 &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을 방문하여 얘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지금껏 각 학교의 위치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 때로는 장기간 집을 비울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망설였었는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는 잠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리서치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눈과 귀를 구합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부지를 놓고 기도 중입니다. 물론 시작부터 건물을 짓고 시작하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시세를 감안하며, 부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을 미리 찾아 준비해야 할 필요를 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2군데를 놓고 기도 중이며,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사역이 가능한 지역을 소개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주실 때를 구함이 우선이기에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고 나아갑니다. 주실 때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3. 가정사역:

[언어진보] 쉽사리 열리지 않는 귀에 때로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들리겠지!' 하면서도 조급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3년차의 부담인가 봅니다. 튜터도 쉽게 구해지지 않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모양 저모양으로 언어의 진보를 위해 채워주시는 느낌입니다. 특별히 이번 언어학교가 크메르어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의 접촉점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준비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지아와 지훈이의 국내생활이 주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서 평안하도록 기도부탁 드리며, 지민이의 건강과 재활치료를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또한, '엄마' 라는 이름의 정신력으로 버텨가는 아내 김은경 선교사를 보고나니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녀 양육 & 육아에 지치지 않도록 버틸 체력과 지혜를 구합니다. 김 선교사를 위해 기도부탁 드리며, 무엇보다 가정이 속히 하나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